

아시안컵 이번 연속... 16강 경쟁 '혼전'

디펜딩 챔프 호주, 요르단에 패... 개최국 UAE 무승부 16강 진출권 걸린 2위 자리 놓고 조별리그 경쟁 치열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개막 초반부터 강팀들이 '그라운드 반란'의 재물이 되는 이번이 속출하면서 16강 진출 경쟁이 예상보다 뜨거울 전망이다. 아시안컵이 개최국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의 A조 개막전을 시작으로 28일간의 열전에 들어간 가운데 대회 초반부터 전력 판도예상을 깨는 경기 결과들이 연출됐다. 대회 2연패를 노리는 디펜딩 챔피언 호주가 B조 개막전에서 요르단에 달미를 잡힌 건 이번 대회 조별리그 최대 이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자국에서 개최된 2015년 대회 때 한국을 연장 접전 끝에 꺾고 출전 사상 처음으로 우승을 차지한 호주는 이번 대회에서도 한국, 일본, 이란 등과 함께 우승 후보로 꼽혔다. 호주는 간판이었던 팀 케이힐이 은퇴하고, 핵심 미드필더인 애런 무어가 부상으로 대표팀에 참가하지 못했지만,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B조에서 '3전 전승, 조 1위'로 무난하게 16강에 오를 것으로 점쳐졌다. 하지만 대회 2연패를 노리는 호주는 개막전 불운의 희생양이 됐다. 요르단과 B조 1차전에서 낙승 예상과 달리 전반 26분에 나온 실점을 만회하지 못한 채 0-1로 패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41위보다

아시아 국가로는 이란 다음으로 높고 AFC 랭킹도 2위지만, 요르단(FIFA 랭킹 109위) 돌풍의 제물이 됐다. 이번 대회부터 참가국이 24개국으로 늘면서 조 1, 2위가 16강에 직행하고, 6개 조의 3위 6개 팀 중 네 팀이 16강 진출권을 얻는다. 호주가 남은 시리아, 팔레스타인과 대결을 거쳐 16강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3전 전승이 예상됐던 호주의 개막전 패배로 2, 3위 경쟁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같은 B조의 팔레스타인과 시리아는 공방 끝에 득점 없이 비겼다. FIFA 랭킹 99위의 팔레스타인은 상대 전적 전력 약세와 후반 24분 한 명이 퇴장당하는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시리아(FIFA 랭킹 74위)와 값진 무승부를 끌어냈다. 2015년 대회에 처음 본선 무대에 올랐던 팔레스타인은 당시 조별리그 3전 전패를 당했지만, 이번 대회 1차전에서 출전 사상 첫 승점을 기록했다.

B조는 1차전 경기 결과에 따라 요르단이 선두로 나선 가운데, 팔레스타인과 시리아가 공동 2위, 디펜딩 챔피언 호주가 최하위로 밀렸다. A조도 한 경기만 치렀지만 벌써 '혼전' 양상이다. 개최국 UAE(FIFA 랭킹 79위)가 객관적 전력 우위와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선두 독주가 예상됐지만, 1차전에서 바레인(FIFA 랭킹 113위)과 1-1로 비겼기 때문이다. 또 아시아의 북병으로 꼽히는 같은 조의 태국(FIFA 랭킹 118위)은 혼자 두 골을 넣은 수비 체트리를 앞세운 인도(FIFA 랭킹 97위)에 1-4 완패를 당했다. 인도는 1964년 대회 준우승 이후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했지만, 태국을 잡으면서 돌풍을 예고했다. A조는 UAE의 1강 예상과 인도가 선두로 나섰고, UAE와 바레인이 공동 2위, 태국이 최하위로 떨어졌다.

KIA타이거즈, 코칭스태프 영입 및 개편

1·2군 코치진 보직 확정

KIA타이거즈가 2019시즌을 이끌어갈 코칭스태프 보직을 확정했다. KIA는 7일 수석코치직 대신 야수와 투수 파트 총괄코치 제도를 도입하고, 퓨처스 선수단 산하에 육성·잔류·재활 파트를 나눠 선수 상황에 맞는 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1군은 김기태 감독을 중심으로 김민호 야수 총괄 코치, 김상수 투수 총괄 코치, 코우조·홍세완 타격 코치, 김민우 수비 코치, 김중국 주루 코치, 이대진·서재용 투수 코치, 김상훈 배터리 코치로 구성된다. 퓨처스팀은 박홍식 감독과 김선진·정성훈 타격코치, 류택현·곽정철 투수 코치, 김성규·김정희 작전·주루 코치, 박기남 수비 코치, 김지훈 배터리 코치가 선수단을 지도한다. /조상기 기자 godqhr0065@

KIA는 기존 3군과 재활군을 육성·잔류·재활 파트로 세분화해, 선수들의 몸 상태와 수준에 맞는 체계적 육성 시스템을 확립할 방침이다. 육성군은 투수 부문과 야수 부문으로 나눠 운영되며, 투수 부문은 앤서니 르루 코치가, 야수 부문은 정기창 코치가 맡는다. 잔류군은 양일환 투수 코치와 장대수 야수 코치가 지도하고, 재활군은 김정수 코치가 맡는다. KIA는 강상수 투수 총괄 코치와 류택현, 양일환, 장대수, 정기창, 앤서니 르루 코치를 영입했으며, 지난해까지 스카우트 팀에서 근무하던 박기남 스카우트는 퓨처스리그에서 본격적인 지도자 생활을 시작한다. 또한 2018시즌을 끝으로 은퇴하게 된 정성훈과 곽정철도 지도자로 인생 제2막을 열게 됐다. /조상기 기자 godqhr0065@

광주FC, 성남FC서 이시영 임대 영입

AG 금메달리스트로 활동량·크로스 장점... 우측 전력 보강

프로축구 광주FC가 측면 수비수 이시영(21·사진)을 임대 영입했다. 광주는 7일 성남FC로부터 오른쪽 측면 수비수 이시영을 1년간 임대 영입하며 전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성남 유스 출신인 이시영(173cm/65kg)은 지난 2017년 덴스캡(우수선수상), 하계 U대회 대표선발, U리그 왕중왕전(전주대/준우승) 등 대학무대서 맹활약하며 프로 데뷔에 성공했다. 이후 팀 내 이학민과 경쟁하며 많은 경기를 치르지는 못했지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며 다시한번 가능성을 보여줬다. 빠른 스피드와 탄탄한 수비가 장점인



이시영은 “올 시즌 목표는 팀의 승격과 개인적인 경쟁력 입증이다”며 “팀에 무거운 짐을 떠날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이시영은 저돌적인 움직임과 날카로운 크로스가 좋다. 이 부분이 팀 컬러와 잘 맞는다”며 “경쟁을 통해 새로운 움직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시영이 합류한 광주는 7일 광양으로 출발해 2019시즌을 향한 본격적인 담금질에 돌입했다. /조상기 기자



호주 상대로 선제공격 넣는 요르단 아신. 요르단의 아나스 바니 아신(왼쪽 두 번째)이 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알 아인의 하자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호주와의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 대회 B조 1차전에서 헤딩슛을 넣고 있다. 요르단은 이날 아신의 선제 헤딩골에 힘입어 지난 2015년 대회 챔피언 호주를 1-0으로 꺾었다. /AFP-연합뉴스

'박항서 마법' 베트남, 오늘 이라크와 격돌

16강행 2위 자리 놓고 D조 이라크와 경쟁

'박항서 마법'을 앞세운 베트남 축구가 2019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16강 진출을 향한 첫 단추를 끼운다.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 축구대표팀은 8일(한국시간) 오후 10시 30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시의 셰이크 자예드 스포츠시티 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D조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이라크전은 '조별리그 통과'를 1차 목표로 제시한 베트남의 16강 진출 여부를 판가름할 일전이다. 아시안컵 3차례 우승에 빛나는 이란이 조 1위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점쳐져 베트

남으로서 16강 직행 티켓이 주어지는 2위 자리를 놓고 이라크와 경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베트남의 3차전 상대인 예멘은 네 팀 가운데 최악체로 분류된다. 조별리그 6개조 3위 여섯 팀 가운데 성적이 좋은 네 팀도 추가로 16강에 진출하지만, 베트남으로선 확실한 16강행 티켓을 남여야 한다. 베트남은 지난해 1월 23세 이하(U-23) 챔피언십 준우승과 8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4강 진출에 이어 같은 해

12월 '동남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아세안 축구연맹(AFF) 스즈키컵에서는 10년 만에 우승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는 베트남이지만 1차전 상대인 이라크는 만만한 적수가 아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88위로 베트남(100위)보다 12계단이 높다. 특히 이라크는 2007년 아시안컵 우승을 차지했고, 2015년 호주 대회에선 4위 성적을 냈다. 반면 베트남은 아시안컵 최고 성적이 이라크가 우승했던 2007년 대회의 8강 진출이다. 베트남은 스즈키컵 최우수선수(MVP)에 올랐던 응우옌 꽁하이(21-하노이FC)

등 젊은 선수들의 패기를 앞세워 이라크 공략에 나선다. 이에 맞서는 이라크는 유고슬라비아 출신의 스토크 카타넬(55) 감독의 지휘 아래 연령별 대표팀에서 좋은 성적을 냈던 탄탄한 조직력으로 맞선다. 이라크는 2015년 대회에 참가했던 미드필더 야흐메드 아신(27-카타르 알코르SC) 등을 내세워 최근 A매치 2연승을 포함해 4경기 연속 무패(2승 2무) 행진 중이다. 박항서 감독으로선 이라크와 첫 경기부터 총력을 펼쳐야 하는 셈이다. 박 감독은 "조별리그 통과가 현실적인 목표"라면서도 이라크와 첫 경기 필승의 지만은 숨기지 않았다. 뛰어난 지도력과 용병술로 베트남 축구의 A매치 18경기 연속 무패(9승 9무) 행진을 이끄는 박항서 감독이 이라크를 상대로 다시 한번 승리의 마법을 부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합뉴스

쇼플리, PGA 투어 새해 첫 우승... 통산 4승

우들랜드에 한 타 차 역전 우승... 토머스 3위·매길로이 4위

2019년 첫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대회인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총상금 650만 달러)에서 잰디 쇼플리(미국·사진)가 우승을 차지했다. 쇼플리는 7일(한국시간) 미국 하와이주 마우이의 카발루아 리조트 플랜테이션 코스(파73)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이글 2개와 버디 8개를 쓸어 담고 보기는 1개로 막아 11언더파 62타를 쳤다. 최종합계 23언더파 269타가 된 쇼플리는 캐리 우들랜드(미국·22언더파 270타)를 한 타 차로 제치고 정상에 올랐다. 2018-2019시즌 8번째 대회인 이 대회는 지난 한 해 우승한 선수들만 출전하는 '왕중왕전'이다. 전년도 챔피언 37명 중 타이거 우즈, 필 미켈슨(이상 미국), 저스틴 로즈(잉글랜드)를 제외하고 34명이 대결을 펼쳤다. 2라운드부터 선두를 달리던 우들랜드가 5번 홀(파5) 버디 외엔 타수를 줄이지 못하며 불안한 리드를 지키는 사이 쇼플리의 거센 추격전이 시작됐다. 5타 뒤진 공동 4위로 4라운드를 시작한



쇼플리는 5~7번 홀에서 3~4m 퍼트를 놓치지 않으며 연속버디를 뽑아냈고, 9번 홀(파5) 칩인 이글로 17언더파가 되며 우들랜드를 한 타 차로 압박했다. 우들랜드는 9번(파5)과 11번 홀(파3)에서 버디를 속아내 달아났지만, 쇼플리는 12번 홀(파4) 107야드를 남기고 보낸 두 번째 샷이 그대로 홀에 들어가며 다시 한 타 차로 쫓아갔다. 18번 홀(파5)에서 3.5m 이글 기회를 놓치고 버디로 한 타를 앞선 채 먼저 경기를 마친 쇼플리는 같은 홀 우들랜드의 3m 버디 퍼트가 홀을 외면하면서 우승을 확정지었다. 저스틴 토머스(미국)가 3위(18언더파 274타), 디펜딩 챔피언 더스틴 존슨(미국)과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마크 리쉬먼(호주)이 공동 4위(15언더파 277타)에 자리했다. /연합뉴스

프로골퍼 배상문, 사랑의열매에 1억원 기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33·사진)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자공동모금회에 1억원을 기부했다. 매니지먼트사 울렛스포츠는 배상문이 지난해 말 1억원을 기부했다면서, 사용처는 사랑의열매와 상의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배상문은 2011년 SK텔레콤 오픈 우승 상금을 내놓으며 사랑의열매와 인연을 맺은 이후 기부 활동을 해왔다. 2016년에도 1억원을 기부해 개인 고액기부자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에 가입했다. 그는 "계속 마음이 있었는데 투어 활동



에 집중하느라 조금 늦게였다. 2019년 새해를 맞아 어려운 이웃이 필요로 하는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상문은 10일부터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열리는 소니오픈에서 새해 첫 대회에 나선다. /연합뉴스

여자축구 대표팀, 중국 4개국 친선대회 출격

10일 소집, 실전감각 끌어올리기... 지소연·조소현 중국서 합류

오는 6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2019 국제 축구연맹(FIFA) 여자 월드컵을 준비하는 여자축구 대표팀이 10일 소집돼 실전감각 끌어올리기에 나선다. 윤덕여 감독이 이끄는 여자 대표팀은 10일 오후 2시 파주 축구대표팀트레이닝센터(NFC)에서 모여 다음 날 오전 4개 국 친선대회가 열리는 중국으로 떠난다.

10일 소집에는 대상 선수 26명 가운데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에서 뛰는 지소연(헬시 레디스)과 지소현(웨스트햄)을 제외한 24명이 참가한다. 지소연과 조소현은 4개국 대회가 열리는 중국 메이저우에서 합류할 예정이다. 대표팀은 4개국 대회에서 여자 월드컵

을 대비한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한편 조직력 다지기에 역점을 둔다. 국내 여자실업축구 WK리그의 장슬기(인천 현대제철)와 일반 실업축구 리그에서 뛰는 이민아(고베아이나) 등 선수들은 지난 시즌이 끝나고 경기에 뛰지 않아 실전 경기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4개국 대회에서 17일 루마니아와 맞붙고, 이어 20일에는 중국-나이지리아 승자 또는 패자와 결승전 또는 3-4위전을 치른다. 루마니아는 여자 월드컵에서 프랑스, 노르웨이 등 유럽 두 팀과 한 조에 편성된

윤덕여호로서는 본선 경쟁력을 테스트할 좋은 기회다. 윤덕여 감독은 앞선 인터뷰에서 "맛볼 가능성이 있는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 특유의 스피드가 뛰어나다"면서 "4개국 대회가 여자 월드컵을 앞두고 적응력을 높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여자 대표팀은 4개국 대회가 끝나고 해산했다가 다음 달 호주와 뉴질랜드, 아르헨티나가 참가하는 호주 4개국 대회 출전을 위해 다시 모인다. /연합뉴스